



**고린도전서15:1-11 복음의 내용은 부활이다.**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사 준비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자세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위로 받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1.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3-4)**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15을 비롯해서 몇 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을 것을 예언하신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 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죽으시고 말씀에 의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시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2.증인을 남기셨습니다.(5-11)**

부활에 대한 증거에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당시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증인에 대해 말합니다. 이처럼 이 증인들은 다양한 증인들이고, 신뢰할 만하며,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기록하여 전해준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3.회심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셨습니다.(8-11)**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행전 9:5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감격이 바울사도가 죽기살기로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